

완주에서 겪는 늦깎이 사춘기

1. 몸으로 배우는 첫 공동체, ‘손가락 공동육아모임’

“초록이모, 망치삼촌~~ 이거 보세요”

우리 제하는 이모, 삼촌이 많다. 요즘 핵가족이라 이모, 삼촌이 기껏해야 1-2명인데, 손가락 회원이 열네가족이니, 이모삼촌이 스물여덟 명이나 된다. 햇수로 3년차인 “손가락 공동육아” 모임은 내가 겪은 첫 공동체다.

넓은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 논다. 매일 밥 당번인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놀이 당번인 엄마와 아이를 사랑해 주는 동네언니인 하늘아이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은 뛰어 논다.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를 따먹고, 감자를 캐 삶아 먹기도 한다. 추석을 맞아 송편을 만들어 주변에 나누기도 했다. 앞 동네 마실을 가면 동네 할머니들은 손주마냥 우리 아이들을 반겨준다. 사탕이며, 과일이며 아이들 먹으라고 내 주신다. 손가락이 쉬는 날은 다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오기도 하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운다.

손가락 공동육아 모임은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됐다. 내가 일하던 사무실에 직원 중 네 명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고 촘스럽게 키워보자는 취지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2014년 여름 “공동육아 특강”을 열어 지역에 관심 있는 엄마, 아빠들이 더 동참하게 됐다. 함께 소풍가는 번개모임으로 시작했다. 이집 저집을 돌며 아이들이 함께 놀기도 하고, 숲놀이 선생님을 모셔 개나리꽃과 단풍, 눈보라를 맞으며 숲을 다니기도 했다. 이집 저집, 이산 저산을 다니다 보니 안정된 공간이 필요했다. 6개월간 공간을 찾다가 드디어 2015년 6월 지금의 ‘손가락콩빵’¹⁾을 사용하게 되었다. 매년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미리 설계한 대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식사부터, 놀이, 청소, 경제적인 부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한번은 열심히 하던 한 엄마가 지쳤다고 떠난다는 말에 같이 힘들어 했다. 중간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유치원을 간다며 떠나기도 했다. “그냥 유치원에 보내지?” 여유 있는 엄마들의 유난이 아닌가 우리끼리 힘 빠지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매번 새롭게 만나는 문제와 일들에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딱 그만큼씩 성장해 왔다. 이렇게 나는 공동체를 배워가고 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요즘 나는 그동안 한 일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많은 것이 혼란스럽다.

2. 완주에서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것

“완주에 내려가지 않을래?” 센터장님이 물었다. 나는 마흔이 되면 지역으로 내려가겠다고 주변에 말해 왔었다. ‘이번기회가 아니면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농귀촌을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우리 부부는 일사천리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말 가방하나 메고 내려왔다.

서울에서 나는 ‘희망제작소’라는 민간 연구소에서 일했다. 지역의 리더 인 자치단체장, 의원,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공동육아 손가락, 마을신문 완두콩, 줌마뜨레 빵집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손가락콩빵”이다. 완주군 소유 건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수익이 없는 우리에겐 공간을 함께 쓰는 일이 참 다행이다.

공무원, 주민리더를 교육했다. 희망제작소는 2009년부터 완주와 협력해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전국최초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우리 연구소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초기 작업을 도왔다. 완주에 내려와 한 일은 법인 설립과 센터 개소였다. 그중 내가 맡았던 일은 이름도 낯선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소개하고 관심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에 필요한 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 방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다. 농촌으로 시집 온 다문화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다.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하는 여성들이 많아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한다. 답답한 가정생활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는 일도 있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이런 문제를 느낀 '방문지도사' 선생님과 다문화 여성들이 같이 기술교육을 받고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다문화 여성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완주를 대표하는 "마더쿠기"의 출발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네에서 살면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일이다. 우리 센터는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컨설팅부터 마케팅, 디자인 등 지원내용도 다양해졌다. 물론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았고 배워가면서 했다. 군수의 역점사업으로 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들이 늘어났고 사업의 영역도 농산물 가공뿐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해졌다.

지역의 공동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자처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자부심도 컸다. 전국 최초의 실험으로 주목받았고, 다른 지역에서 배우러 우리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경험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그렇게 5년간 달려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혼란스럽다. 내가 무엇을 지원했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이었는지? 그럼 나는 어떤 공동체와 마을을 꿈꾸는지?

3. 기획자와 생활자 사이

손가락 공동육아 모임을 경험하면서 나는 180도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2015년 올해 처음 완주군 창업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았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였는지. 교육이 있다고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는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꼭 아이를 둔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4명의 엄마와 4명의 아이가 출석했다. 답답해하는 아이들 때문에 앞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뒷자리로 물러나왔다. 교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앞에 서서 진행하던 내 생각이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진행자와의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주 다른 입장에 놓이니 이상했다. 완주군의 정책을 소개하고, 마을 공동체 협의회 이름을 만드는 워크숍도 하고 예산 사용방식에 대한 설명도 듣고 마지막으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멘토링도 받았다.

'사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이라는 강조와 함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 공동체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알아두고, 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과의례처럼 교육을 한다. 우리 엄마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너무 어려워요~~"라며 애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핑계 삼아 들락거렸다.

센터에서 활동할 때 나는 '공동체들이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내부에 민

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추상적인 질문에 파묻혀 있었다.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찾고, 회의기법이나 요즘 유행하는 퍼실리테이션기법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경영, 회계 등을 교육 했다. 추상적인 질문에 당위적인 답만 오갔다.

손가락 만해도 그렇다. ‘사회적 가치, 공공성’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나? 지금 우리 앞가림도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민주적 의사결정’도 그렇다.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 서운해 하면 어찌지?’ 그런 걱정일 뿐 거창한 질문에 매어 있지 않다. 게다가 사람들은 공동체의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민주적이기를 바라지만 너무 힘들다. 그로 인해 겪는 무수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회의의 중요성,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은 어렵다. 어떤 공동체는 만장일치의 합의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가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많은 공동체들이 이런 이상적인 모습 이길 바랐다.

나는 ‘다른 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어떻게 민주적으로 보일지?’ 또는 ‘개인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명분상 어떻게 공공성을 보여주지?’라고 보여 지는 공동체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봤다. 나는 개인이 주도할 우려가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을사업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었다. 1인 1표로 최소한의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를 제안했지만 결국 출자금의 절반이상을 개인이 투자해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결국 개인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기로 했다. 우리는 당연히 주민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할 줄 알았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을 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군의 지원을 통해 기술을 가진 그 사람이 계속 사업을 이어가면, 우리에게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연로한 마을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우니 그편이 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참 옳고 바람직한 이야기였지만 철부지 같은 소리로 들렸고 옳지 않다는 지적처럼 느껴져 불편해 하셨다. 생활자인 그 분들은 우리와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다. 결국 통하지 못했고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중요한 말들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잘 몰랐다. 생활자의 내공이 필요했다.

기획자와 생활자는 참 다르다. 아니 생활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기획자는 참 다르다고 표현해야겠다. 나는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왔다. 추상적인 질문과 가치들이 중요했다. 내 머리와 몸,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 지금와 생각해 보면 내 일상은 생산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암채 같은 소비자였고, 지역 문제에 고민할 여유도 없이 과로를 생활화하는 동네 하숙생이었고, 동네 정치에도 냉소적인 방관자였다. 이제는 동네 백수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 안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4. 기이한 공모자들, 민원인과 빠꿈이 사이

올 봄 우리 마을에서 첫 “딸기축제”를 했다. 이장님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사업이라 부담되었던 것 같다. 게다가 한참 농번기일 때라 더 그랬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우리 마을 담당자는 더 고민이 많았고 이장님보다 더 애를 썼다. 리플렛 사진이며 문구, 행사 기념품, 프로그램, 예산 집행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었다. 반면에 우리 동네 이장님은 축제라기보

다 마을잔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에게 대접할 식사와 내빈으로 초대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셨다. 그래서 인지 이것저것 챙기며 찾아오는 담당자가 고마우면서도 내심 번거로워하는 눈치였다.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일단” 행사를 잘 치루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특히 행정이나 실무자들의 경우 경험도 없고 더딘 마을주민들을 앞서나가게 된다. 목표는 늘 마을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지만 실제 준비과정에서는 마을사람들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갈등이 생겨나도 얼른 무마하고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다음해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마을도 잘 마쳐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마을의 의지와 행정의 격려로 다음해 새로운 도전을 기약한다.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지원하는 곳도 완주군뿐 아니라 전라북도, 문광부, 농림부, 행안부 같은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늘어났다. 요즘은 민간차원에서도 늘고 있다.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업에서도 지원한다. 작게는 몇 백에서 몇 억까지 그 규모도 다양하다. 완주군은 초기에 공모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어떤 마을이 적합한지 조연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관련 사업을 한 부서로 모으게 되면서 공동체 경험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연초가 되면 행정, 중간지원조직, 마을 할 것 없이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는데 열을 올린다.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기금의 목적에 맞춰 적합한 공동체를 추천한다. 적합한 사업을 공동체와 함께 구상한다. 잘 기획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그럴듯한 사업, 명분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지원기관들 사이에서 공모사업 사냥꾼을 “빠꿈이”라 부르더라. 정보를 빨리 알아채고 사업을 잘 따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묘하게 민원인과 “빠꿈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마음이 깔려있다. 계속 요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의 필요와 공동의 이익을 근거로 지원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공동체들은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얼굴도장을 찍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지원기관도 사업을 잘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을 만한 곳이 지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골을 찾게 된다. 명분 있게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가다보면 단골손님에서 우수고객이 된다.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공동체들의 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주객이 전도된다.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목표가 되고, 선정 이후에는 계획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도 기금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해당 마을이나 공동체 만큼 적극적이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지원기관의 성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늘 목표는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지만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수행할 때 이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마을 사람들 개개인의 요구를 듣고 서로를 배려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무마하거나 무시하게 된다. 결국 갈등이 터져 나온다. ‘돈’이 ‘독’이 되는 순간이다. 공동체 내부에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지원 사업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리더가 있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기금과 지원기관에 휘둘리게 된다.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돈’은 필요하다. 이런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한 곳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행정이나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주민들은 민원인과 빠꿈

이 사이에 줄타기를 하거나 아예 이런 지원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을 낳게 한다. 다른 농촌에 비해 완주의 활약은 기대이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마을만 해도 40대가 우리뿐이다. 10년후 농촌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시작은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에 대한 토로와 만남이 씨앗이 된다. 센터를 그만두고 경험한 ‘숯가락 공동육아 모임’도, 처음으로 한마지기 벼농사를 지어 먹거리 자급이란 거창한 꿈에 도전을 도와준 ‘벼농사모임’도,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교류와 판매의 장을 열어준 ‘콩낭마켓’도 모두 만남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뜬금없게 들리지만 완주에 처음 왔을 때처럼 물어야 할 것 같다.

5. 완주 고산향 교육 공동체의 교훈

얼마 전 고산고등학교 교장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예비 학부모라는 이유로 추천 된 것 같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사는 이어졌고, 좋은 분이 추천되었다.

고산고등학교는 지역의 애물단지 학교였다. 지역의 아이들이 줄고,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주로 갈 형편이 안 되거나, 전주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런 학교가 2018년부터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을 준비하며 그에 맞는 교장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이 공모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운영위원장님은 이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이번 교장 공모는 고산고등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2011년 “고산향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인근 5개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초, 중, 고 12년의 학교교육과 지역교육을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 지역교육의 성장을 위한 인문학 강좌, 생태 및 역사기행 사업,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신문 발행도 하고 있다.

2011년 학부모 몇 명과 지역의 청년이 빵을 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고산고 아이들 멘토링 사업을 시작한 ‘이웃린’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고산면 주민들이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는 정책을 활용해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중학교가 되면 전주로 나가던 아이들을 지역의 중학교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학교까지는 고산에서 보낸다는 상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다.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지역에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로컬에듀”라는 완주군 정책이 생겨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의 문을 열고 교사와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올초 초,중,고 교사들끼리 스스로 교류 행사를 했다며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서로간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노력했는지 눈에 선하다. 아직도 갈등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뒤에서 든든하게 이런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고산향의 역사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활동들을 시작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저절로 사람들이 만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

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아름다운 재단, 사회적기업 진흥원과 함께 지역에 맞는 자유학기제-진로탐색 수업을 하는 것도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산에는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장이 있어 좋다. ‘돈’보다 ‘사람’이, ‘사업’보다 ‘함께 이야기 할 장’이 우선해야한다는 것을 느낀다.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느린 걸음, 긴 호흡을 통해 배운다.

6. 소비되지 마시길!!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아주 다르다.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글로만 배웠고 머리로만 알았다. 머리로 공동체를 지향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서울깍쟁이다. 그동안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부해 왔던 것들이 혼란스러워졌다. 전국최초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 했던 것들 말이다. 그동안 남을 위한 일을 한다는 생각에 위안 삼으며 내 일상은 소홀히 했다.

어린왕자에서 보면 ‘등대지기’가 나온다. 밤이 되면 등대를 켜고, 아침이 되면 등대를 끄고 매일 반복되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어린왕자가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역시나 하며 떠나버린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등대지기 같았다. 보람과 성취감 뒤에 느껴진 공허함.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위한 끝도 없는 욕망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강박으로 힘들었다.

“소비되지 마시길!”²⁾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한 기획자가 아니라 나에서 출발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 돼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고 싶다. 그때 느낄 수 있는 충만함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농촌’, ‘지역’이라는 공간이 주는 부족함과 주변 부라는 소외감으로 겸손해 질 수 있기를, 자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머리로만 앞서가던 내가 서서히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야 하나. 나이 마흔이 돼서 이제 발이 땅에 닿는 것 같다. 그리고 똥똥 떠다니던 내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2) “소비되지 마시길!” 창작, 그러니까 생산에 매진한다고 자부한 나로선 충격이었다....이야기를 무턱대고 만드는 동안 인생은 소비되고 있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남은 나날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새로운 물음에 얼음송곳으로 날아들었다...각각의 성공과 실패는 절대적인 가치를 띠지 않고 인생이라는 또 다른 기획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비 그리울 때 보라, 김탁환, 난다, p 102)